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국승용·서홍석·서동주·권상욱·김경진

### 요약

2021년 상반기에는 농식품 가격 상승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가 컸으나, 하반기 들어 공업제품·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2020년 긴 장마, 태풍, 겨울철 한파 등에 의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최근 양호한 기상의 영향으로 채소류 작황 호전, 2021년산 농산물 생산량의 회복, 가금류 재입식에 따른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있음.
- 과일의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방식의 특성 때문에 과일류를 제외하고 농산물 물가지수를 재산출한 결과, 2월 이후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8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2021년 농식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축소되고 있으며, 공업제품·개인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음.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단기적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며, 처분가능소득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수입단가 상승 요인은 축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

- 수요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밥 소비 증가 요인,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증가 요인, 수입단가 상승 요인은 축산물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
-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임금 상승 등에 의한 가격 상승 영향은 미미하며, 일시적인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상에 따른 작황 부진, 가축질병 발생 등 단기적 수급 여건의 변화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음.
- 2019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가격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2019년 농산물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로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

공급 측면의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요인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이 필요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은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수요 측면의 요인 변동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나타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측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급·수요 측면의 다양한 잠재 요인의 영향을 진단·분석하고, 가격 변동 요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가격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01

## 농산물 물가지수 동향

## 1.1. 주요 농산물 산지·도매가격 동향

## 8월 기준 전년 대비 산지·도매가격 대부분의 채소류 하락, 축산물은 상승

- 8월 기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 양파, 건고추, 대파 등의 노지채소 가격 하락
- 오이, 애호박, 풋고추, 토마토 등의 시설채소 가격은 계절에 따라 등락, 8월 기준 하락
- 마늘, 배, 복숭아,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가격 상승

〈표 1〉 주요 농산물 전년 동월 대비 산지·도매가격 등락률

단위: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배추	-45.7	-14.2	11.9	1.9	-44.5	-24.5	-46.3	-44.7
무	-33.9	-20.3	-19.0	-11.9	-5.6	-23.0	-3.2	-32.6
마늘	72.2	80.2	86.3	90.4	79.5	70.6	43.8	17.7
양파	82.6	66.7	60.1	1.2	-28.6	-5.8	-11.4	-11.4
건고추	92.6	93.8	91.0	89.1	88.5	74.3	70.7	-32.5
대파	185.4	383.3	493.4	329.9	70.1	-32.0	-44.3	-50.2
오이(백다다기)	-16.7	0.1	4.7	3.2	36.7	-0.9	-7.5	-18.9
애호박	7.7	1.3	3.0	17.8	38.9	18.6	-42.4	-51.9
풋고추(청양)	-11.3	-15.7	-5.9	19.6	31.5	49.2	8.3	-49.4
토마토	-25.4	-33.2	-15.0	-5.7	12.0	12.5	-18.8	-19.4
수박	-53.7	-17.7	17.1	9.9	5.3	0.1	36.8	-13.1
사과(후지, 8월 쓰가루)	89.5	85.9	47.7	34.4	3.8	-19.8	-46.3	-36.2
배(신고, 8월 원황)	62.1	91.3	76.7	102.9	88.8	95.6	101.4	27.5
포도(캠벨얼리)	-	-	-	-	25.7	26.5	21.6	0.1
복숭아	-	-	-	-	-	-10.2	31.4	63.1
쌀	14.9	15.6	16.7	17.5	17.7	17.2	16.8	16.1
감자	47.4	15.9	8.2	3.7	-23.2	-20.8	3.0	0.5
소고기	5.0	9.0	9.5	6.0	3.0	9.6	3.9	5.7
돼지고기	25.4	8.6	4.3	8.0	-2.4	9.9	5.1	24.6
육계	77.7	30.3	15.2	41.7	32.6	-1.2	32.3	28.7
계란	35.5	91.1	62.5	65.5	84.4	103.2	99.4	82.7

주: 배추, 무, 양파, 건고추, 대파, 오이, 애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자 등은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 쌀은 통계청 산지쌀 값조사, 소고기, 돼지고기, 육계,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사용하여 등락률을 산출함.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격."(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통계청. "산지쌀값조사."(https://kosis.kr/, 검색일: 2021. 9. 6.); 축산물품질평가원(https://www.ekapepia.com/index.do, 검색일: 2021. 9. 6.).

2020년 여름철 긴 장마에 의한 농산물 생산 차질,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 지속

-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농산물 생산이 부진했던 2020년산을 소비하고 있는 쌀, 배 등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속
- 쌀은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영향으로 6월부터 전월 대비 하락 전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살처분으로 사육 규모가 감소한 육계, 계란 등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8월 이후 2021년산이 본격 출하되는 농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여름철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

- 8월부터 2021년산이 본격 출하되는 건고추는 가격 하락
- 포도 가격은 전년 수준이며 재배면적이 감소한 캠벨얼리·거봉 가격은 상승, 재배면적이 증가한 샤인머스켓은 하락
- 9월부터 2021년산이 본격 출하되는 쌀, 배 등은 9월부터 전년 대비 하락 전환될 것으로 전망

농산물 산지·도매가격 등락에 따라 소비자가격 등락하나, 변동 폭은 축소

- 농산물의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이 등락하면, 즉시 또는 일정한 시차 이후에 소비자가격도 등락
-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에 물류비, 마케팅비 등 고정성 경비가 추가되어 결정되므로,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의 변동에 비해 그 폭이 축소
- 농산물의 재고 보유, 수출입 등도 소비자가격의 변동을 완충

## 1.2. 농산물 물가지수 동향과 기여도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이던 물가, 2021년 2/4분기 2.4% 상승, 농식품 물가는 7.5% 상승

농식품 물가지수 1/4분기 큰 폭 상승 이후 상승 폭 축소, 반면 공업제품·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폭 확대

- 전년 동기 대비 농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은 1/4분기 8.2%, 2/4분기 7.5%, 3/4분기 4.0%로 축소
  - 신선농산물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1/4분기) 14.9% → (2/4분기) 13.4% → (3/4분기) 5.7%
  - 가공식품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1/4분기) 1.4% → (2/4분기) 1.5% → (3/4분기) 2.1%
  - 신선농산물 물가지수는 2020년 3/4분기부터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과일 물가지수 상승률이 최근 20% 이상으로 신선농산물 물가 상승에 기여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 총 물가지수 대비 공업제품, 개인서비스의 물가 상승폭 확대 추세
  - 공업제품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1/4분기)  $\Delta 0.2\%$   $\rightarrow$  (2/4분기) 2.7%  $\rightarrow$  (3/4분기) 3.0%
  - 개인서비스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1/4분기) 1.6%  $\rightarrow$  (2/4분기) 2.4%  $\rightarrow$  (3/4분기) 2.7%
  -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요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여 물가 상승 억제

〈표 2〉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 기여도 분석

분류	가중치	2020(%)				2021(%)			기여도(%p)		
		1/4	2/4	3/4	4/4	1/4	2/4	3/4	1/4	2/4	3/4
총 지수	1,000.0	1.1	-0.2	0.6	0.4	1.1	2.4	2.3	1.1	2.4	2.3
농식품	136.1	1.1	1.8	6.2	6.8	8.2	7.5	4.0	1.1	1.1	0.6
신선식품(농산물)	66.0	1.0	2.4	11.1	12.2	14.9	13.4	5.7	1.1	1.0	0.4
농산물	41.9	-0.8	-0.3	12.1	13.8	16.2	14.9	2.1	0.7	0.7	0.1
곡물	8.2	-3.4	-3.6	-2.5	5.0	10.2	11.7	11.8	0.1	0.1	0.1
채소	15.1	14.0	9.9	27.2	9.5	14.2	12.3	-14.7	0.3	0.2	-0.3
과실	15.9	-10.1	-5.2	8.5	25.7	23.9	21.2	16.3	0.4	0.4	0.3
기타	2.7	-9.2	-9.2	-1.1	17.1	21.3	23.4	14.4	0.1	0.1	0.0
축산물	24.1	4.2	7.1	9.0	8.9	12.0	10.3	11.9	0.3	0.3	0.3
가공식품	70.1	1.3	1.3	1.4	1.5	1.4	1.5	2.1	0.1	0.1	0.1
공업제품	325.8	2.0	-1.4	-0.5	-0.9	-0.2	2.7	3.0	-0.1	0.8	1.0
전기·수도·가스	44.4	1.5	1.3	-4.3	-4.1	-5.0	-4.8	-2.5	-0.2	-0.2	-0.1
집세	93.2	-0.1	0.1	0.3	0.6	0.9	1.3	1.5	0.1	0.1	0.1
공공서비스	145.1	-0.6	-1.8	-1.7	-3.5	-2.1	-0.7	-0.3	-0.3	-0.1	0.0
개인서비스	313.6	1.3	1.0	1.2	1.4	1.6	2.4	2.7	0.5	0.8	0.9

주 1) 농식품은 농산물과 축산물에 해당되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재산출하였으며, 통계청 품목 성질별 분류체계에서 가공식품(중분류)은 공업제품(대분류)의 하위 분류에 속함.

2) 2021년 3/4분기 물가지수는 7월과 8월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3)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기여도를 산출하여서, 상위 분류로 합계 시 기여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9. 6.).

## 농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기여도 컸으나 점진적 하락, 반면 공업제품·개인서비스 기여도 상승

- 물가지수 중 농식품의 비중은 13.6%, 신선농산물의 비중 6.6%
  - 곡물 0.8%, 채소 1.5%, 과실 1.6%, 축산물 2.4%
-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한 2021년 농식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축소, 공업제품·개인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큰 폭으로 상승
  - 농산물 가격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품목의 가격 변동이 총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sup>1)</sup>

1) 기여도는 하위 분류의 변동이 총 지수의 변동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는 나타내는 지표로 '(하위 분류의 분석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 기준시점의 총 지수 \* 하위 분류의 가중치 비중'으로 계산함.

- 1/4~2/4분기 농식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으나, 3/4분기에는 공업제품·개인서비스 요금의 기여도 대비 하락
- 농식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 (1/4분기) 1.1%p → (2/4분기) 1.1%p → (3/4분기) 0.6%p
-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 기여도, (1/4분기) △0.1%p → (2/4분기) 0.8%p → (3/4분기) 1.0%p
- 개인서비스의 물가 상승 기여도, (1/4분기) 0.5%p → (2/4분기) 0.8%p → (3/4분기) 0.9%p

#### 2021년 3월부터 농산물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은 점진적 안정

- 2021년 2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하였으나, 채소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월부터 상승률이 줄어들어 8월 상승률은 9.0%
- 곡물, 축산물, 과일 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가격 지속
  - 곡물은 2020년산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신곡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2020년 11월부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2021년 추가적인 상승은 미미한 가운데 높은 가격을 유지
  - 소고기, 돼지고기는 국내 수요 증가, 수입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내외 상승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살처분으로 사육마릿수 감소하여 달걀 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
  - 과실은 2020년 생산량 감소로 4/4분기부터 가격이 상승, 20%대의 높은 상승률 유지
- 채소류 가격지수는 2월 전년 대비 20.8% 상승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 1월 한파의 영향으로 대파, 배추 등의 생산량이 감소, 2월 채소류 물가지수 큰 폭으로 상승
  - 작황이 회복되고, 봄대파·봄배추 등 봄 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채소 가격 하락
  - 채소류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 (2월) 20.8% → (3월) 19.0% → (4월) 16.7% → (5월) 11.7% → (6월) 7.7% → (7월) 3.6% → (8월) △3.4%
- 농산물 물가지수 중 약 24%의 비중인 과실류 물가지수가 계절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농산물 물가지수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과일의 월별 출하 비중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저장성이 약한 특성 때문에 출하의 계절성이 뚜렷<sup>2)</sup>
  - 소비자물가 산출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과일의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농산물 물가지수가 현실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sup>3)</sup>

2) 사과와 배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여 연중 출하되나, 명절 수요로 1~2월과 9~10월이 성 출하기임. 감귤은 11월~익년 3월, 포도는 6~11월, 복숭아는 6~10월로 이외 기간은 출하되지 않음. 국내 주요 과일의 월별 출하 비중은 <부도 1>을 참고 바람.

3)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시 사용되는 가중치는 연도 단위로 설정한 가중치를 매월 적용하고 있으며 계절조정지수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2017년 기준 가중치 개편 시, 계절 농산물의 미출회 기간에는 계절 품목을 제외한 실제 거래되는 계절 품목군의 지수 변동률을 계절 품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정보보고서, 2020. 12.). 이에 따라 감귤, 포도, 복숭아 등 가격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에는 사과나 배 등 시장 출하하는 과일 품목군의 가격 변동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 소비자가 전년산 과실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기간에도 사과 3.0, 배 0.8, 감귤 1.9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물가 안정
- 과실을 제외하고 농산물 물가지수를 재산출하면, 2021년 농산물 물가지수 상승률은 설명절이 있었던 2월 이후 하락하는 추세
- ('21. 2월) 16.1% → (3월) 13.7% → (4월) 14.1% → (5월) 11.4% → (6월) 9.6% → (7월) 8.9% → (8월) 4.6%

〈표 3〉 전년 동월 대비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분류	2020년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신선식품(농산물)	6.6	11.3	15.0	14.6	11.7	10.1	11.1	18.4	15.3	14.8	13.6	11.9	11.1	9.0
신선식품 (과실 제외 농산물)	8.1	12.7	15.0	11.4	8.7	6.7	8.6	16.1	13.7	14.1	11.4	9.6	8.9	4.6
농산물	4.8	11.9	19.0	18.3	12.5	10.4	10.7	20.3	17.6	16.4	15.2	13.0	10.4	6.8
곡물	-3.4	-2.6	-1.4	1.7	5.4	7.9	9.5	10.4	10.7	11.1	12.0	12.0	12.6	12.2
채소	12.0	21.5	29.4	21.7	11.4	5.8	5.8	20.8	19.0	16.7	11.7	7.7	3.6	-3.4
엽채류	29.7	36.3	43.2	7.9	-10.7	-15.2	-12.8	2.3	-1.0	1.5	-7.0	-4.8	-9.2	-11.3
근채류	28.1	38.4	49.3	24.5	1.7	-4.6	-5.1	11.1	11.6	5.2	0.0	-5.4	-6.5	-13.6
과채류	14.0	21.8	29.6	30.0	15.1	6.6	2.4	13.9	8.4	8.2	11.1	13.0	7.7	-0.7
조미채소	-3.2	11.3	23.7	35.8	42.5	38.3	45.7	70.9	70.6	61.4	40.8	20.3	15.7	4.1
과실	-1.0	5.0	14.4	24.1	20.8	22.4	22.5	26.4	19.9	19.5	24.3	23.8	21.7	25.8
기타	-0.4	0.8	-1.1	1.2	-1.1	-0.6	-0.9	6.2	6.1	6.9	6.7	6.4	4.3	4.1
축산물	9.5	10.2	7.3	7.5	9.9	9.4	11.5	14.4	10.2	11.3	10.2	9.5	11.9	12.5
국산 쇠고기	9.8	9.5	10.6	10.6	10.5	10.7	10.0	11.2	11.5	10.6	9.4	7.1	7.7	7.5
수입 쇠고기	3.5	3.4	1.1	0.5	-1.0	-1.3	0.5	1.9	0.3	1.1	4.0	2.3	5.1	6.6
돼지고기	14.3	16.2	7.5	10.0	18.4	16.1	18.0	18.0	7.1	10.9	6.8	6.2	9.9	11.0
닭고기	0.6	-1.1	1.4	-4.6	-1.7	0.9	7.5	8.7	6.2	8.3	6.3	3.2	7.5	11.2
달걀	6.2	8.6	9.0	5.3	1.9	1.6	15.2	41.7	39.6	36.9	45.4	54.9	57.0	54.6

주: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농산물 단위(소분류)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의 품목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후 산출하였음. 통계청의 품목 성질별 분류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표 2〉의 등락률과 상이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9. 6.).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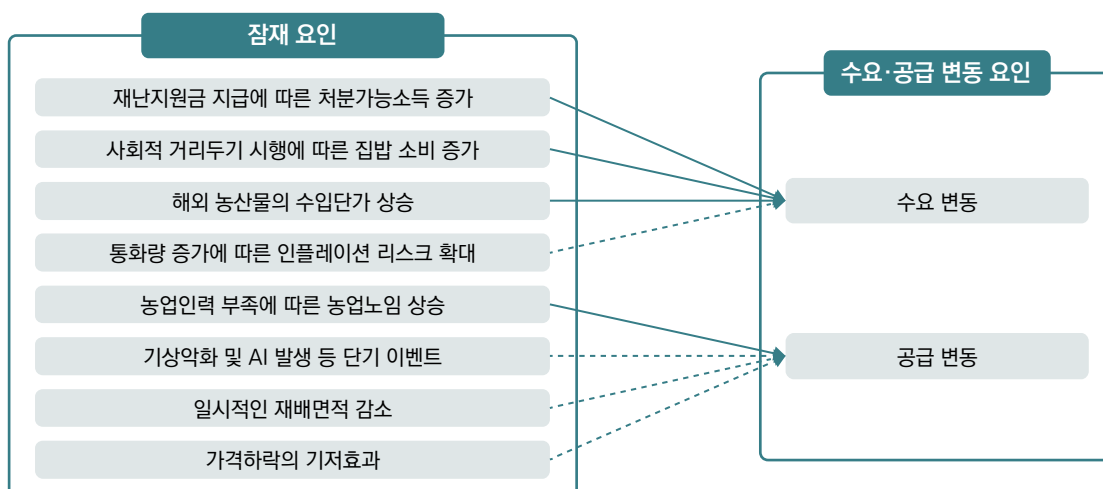
## 농산물 물가 변동 요인과 영향 분석

## 2.1. 농산물 물가 변동 요인

농산물 물가의 등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

- 소득, 수급구조, 수입 농산물의 가격, 생산비 변동, 연도별·계절적 생산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영향
- <그림 1>은 2020년 하반기 이후 농산물 물가 상승의 잠재 요인과 수요·공급 변동 요인을 연계하여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요인을 구조화
  - 잠재 원인으로 부각된 배경과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진단
  - 추정 가능한 원인은 정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 2절에서는 수요 측면, 3절에서는 공급 측면의 잠재 원인을 진단
  - 일시적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품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3장에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그림 1> 농산물 물가 상승의 잠재 요인과 수요·공급 변동 요인



주: 실선은 정량적 영향 분석을 수행한 잠재 요인이며, 점선은 정성적으로 효과를 진단한 잠재 요인임.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을 육류 가격 상승의 잠재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가축 사육마릿수와 생산량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 2.2. 수요 측면의 잠재 요인과 영향 분석

### 소비행태 변화, 처분가능소득 증가로 수요곡선이 이동하였으나 육류 가격에 선택적으로 영향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식생활 패턴 변화
  -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하면, 외식, 교육, 오락·문화의 지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가구 내 식사를 위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sup>4)</sup>
- 2020년 처분가능소득은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 근로소득, 사업소득 감소에도 이전소득(23.3%)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
  - 이전소득의 증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적이전소득의 대폭 증가(40.1%)에 기인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액은 131만 원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액(134만 원)과 비슷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영향으로 2020년 잉여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 오락·문화생활(△22.6%), 교육(△22.4%), 의류·신발(△14.78%), 음식·숙박(△7.6%) 등 소비지출액이 줄고, 식품을 소비(식료품·비주류음료)할 수 있는 잉여소득<sup>5)</sup>은 18.9% 증가
- 2021년 처분가능소득과 잉여소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년 대비 증가한 수준
  - 2021년 상반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 식품 소비를 위한 잉여소득은 4.4% 감소하였으나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sup>6)</sup>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파급영향 계측
  - 최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시나리오를 임의로 설정하여 파급영향 추정<sup>7)</sup>
  - 소득 증가율은 (1)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처분가능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 1.3%, (2)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증가율인 2.4%, (3) '20년 하반기 증가율인 3.2%로 설정
- 소득 증가에 의한 농산물 물가 상승 효과는 0.8~1.9%로 미미,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
  - 상승 효과는 곡물 0.2~0.4%, 채소 0.4~1.1%, 과수 0.5~1.3%, 축산물 1.7~4.1%
  - 한육우의 가격 상승 효과는 3.4~8.3%, 돼지 1.7~4.1%, 육계 1.5~3.8%, 계란 0.5~1.2%

4)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은 <부표 1>을 참고.

5)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을 위한 잉여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식료품·비주류음료를 제외한 여타 소비지출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음.

6) KREI-KASMO 모형의 기존 가정과 모형 구축의 이론적 원리와 운용 방식, 모형의 세부 구조 등은 서홍석 외(2020)에 정리되어 있음.

7) 가구 내 식사 소비를 위한 잉여소득 변화에 따른 집밥 수요 변화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집밥 수요와 잉여소득 증가 시나리오는 최근 처분가능소득의 변화율을 구간으로 하여 임의 설정함.



〈표 4〉 소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농산물 가격 파급 효과 추정 결과

단위: %

항목	소득 증가 시나리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1.3%	2.4%	3.2%	
전체 농산물	0.8	1.4	1.9	13.4
곡물	0.2	0.3	0.4	7.0
채소	0.4	0.8	1.1	13.1
엽채류	0.7	1.4	1.8	3.5
근채류	0.5	0.8	1.1	9.6
조미채류	0.3	0.5	0.7	34.1
과채류	0.5	0.9	1.2	12.9
과수	0.5	1.0	1.3	19.3
축산물	1.7	3.1	4.1	10.4
한육우	3.4	6.2	8.3	9.8
돼지	1.7	3.1	4.1	12.2
육계	1.5	2.8	3.8	3.9
오리	0.8	1.5	2.0	-
계란	0.5	0.9	1.2	27.0

주: 처분가능소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효과는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 조사의 품목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상위 분류의 가격 등락률을 추정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2020년 7월-2021년 8월 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을 산술평균한 값이며 오리는 소비자물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9. 6.).

### 수입단가 상승에 의한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 효과는 제한적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기상이변 영향으로 수입 농산물의 수입단가는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sup>8)</sup>
  - 2020년 하반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수입단가 상승률, 과실류 9.0%, 채소류 7.2%, 축산물 4.9%<sup>9)</sup>
  - 육류는 축종별로 수입단가 등락률 상이, 쇠고기 3.8%, 돼지고기 12.1%, 닭고기 △12.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부류별로 파급영향 계측
  - 최근 1년간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의 수입단가 상승률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파급영향 추정
  - 수입단가 상승률 시나리오는 전년 동월 대비 (1) '20년 하반기 상승률 평균 (2) '21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상승률 평균 (3) '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상승률 평균을 조합하여 설정, 개별 품목의 수입단가 상승률은 상위 부류의 상승률을 일괄 적용
- 최근 수입단가 상승이 농산물 가격상승에 미친 영향은 1.0~1.9%로 미미, 축산물의 영향력은 비교적 큰 폭
  - 채소 0.6% 상승, 과수 1.8~2.2% 상승으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기여도 미미
  - 축산물 1.9~4.7% 상승으로 최근 물가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 축종별로 수입단가 등락률 차이가 커 제3장에서 수입단가 상승폭이 컸던 돼지에 대해 추가 분석

8) 2020년 하반기 이후 수입 농산물의 월별 수입단가 등락률은 (부표 2)를 참고 바람.

9) 반면 2016~2019년 기간 수입단가의 평균 상승률은 과실류 △0.5%, 채소류 △1.8%, 축산물 2.6% 수준이었음.

〈표 5〉 수입단가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농산물 가격 파급효과 추정 결과

단위: %

항목	수입단가 상승 시나리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과실류 8.1% 채소류 7.0% 축산물 2.8%	과실류 9.0% 채소류 7.2% 축산물 4.9%	과실류 9.9% 채소류 7.4% 축산물 7.0%	
전체 농산물	1.0	1.4	1.9	13.4
채소	0.6	0.6	0.6	13.1
엽채류	0.5	0.5	0.5	3.5
근채류	0.1	0.1	0.1	9.6
조미채류	0.8	0.8	0.9	34.1
과채류	0.5	0.5	0.6	12.9
과수	1.8	2.0	2.2	19.3
축산물	1.9	3.3	4.7	10.7

주: 수입단가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효과는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 조사의 품목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상위 분류의 가격 등락률을 추정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2020년 7월-2021년 8월 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9. 6.).

### 시중 통화량, 유동성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미미

-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
  - 저금리 기조<sup>10)</sup>, 민간과 기업 부문 신용공급 확대 지속, 대규모 추경 편성<sup>11)</sup>으로 2021년 1월부터 광의통화량(M2 기준, 계절조정)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매월 300조 원 상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시중에 풀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과 실물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
- 통화량과 농산물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0.05로 매우 낮아<sup>12)</sup>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기 곤란
  - 〈표 2〉에서 여타 항목의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세여서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은 약한 수준
  - 시중 통화량 증가로 꾸준히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저장하기 어렵다는 농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임.

1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0.5%p(1.25→0.75%) 인하, 5월 0.25%p(0.75→0.5%) 추가 인하한 이후 최근까지 동결하였음. 단기 금리의 기준금리라고 알려져 있는 CD(Certificate of Deposit) 유통수익률(91일)도 2020년 5월 이후 1.0% 이하로 하락하였고, 최근까지 0.7% 내외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81조 7천억 원 수준의 대규모 추경을 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였음.

12) 2005년 1월~2021년 6월의 광의통화량(M2 편잔, 계절조정)과 농산물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0.05인 반면 광의통화량과 주택매매가격지수(전국)는 0.59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냄.

## 2.3. 공급 측면의 잠재 요인과 영향 분석

### 인건비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방역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농업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차질
  - 2020년부터 농업 인건비 상승 폭 확대,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20년 1/4분기) 2.6% → (2/4분기) 3.3% → (3/4분기) 3.4% → (4/4분기) 6.0% → ('21년 1/4분기) 5.9% → (2/4분기) 8.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으로 인건비 상승 시뮬레이션 수행
  - 최근 농업 인건비 상승률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에 미치는 파급 영향 추정
  - 인건비 상승률 시나리오는 (1) '20년 1/4분기부터 최근까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인 5.0%, (2) '20년 3/4분기부터 최근까지 평균 상승률인 6.0%, (3) '21년 1/4분기부터 최근까지 평균 상승률인 7.4%로 설정
- 농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체 농산물 가격 효과는 0.2%에 불과
  -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큰 시나리오에서도 과수와 곡물 가격은 0.1% 미만 상승, 채소는 0.3%, 축산물과 기타 농산물은 0.4% 수준 상승
  - 인건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효과 미미

〈표 6〉 농업 인건비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농산물 가격 파급 효과 추정 결과

단위: %

항목	농업 인건비 상승률 시나리오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5.0%	6.0%	7.4%	
전체 농산물	0.16	0.20	0.24	13.4
곡물	0.04	0.05	0.05	7.0
채소	0.20	0.24	0.29	13.1
과수	0.01	0.01	0.02	19.3
축산물	0.29	0.35	0.44	10.4

주: 농업 인건비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 효과는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 조사의 품목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상위 분류의 가격 등락률을 추정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2020년 7월~2021년 8월 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 9. 6.).

### 재배면적 감소,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가축질병 발생 등이 주요 요인

- 곡물과 청과물의 가격 상승은 작황 부진 또는 일시적 재배면적 감소가 주요 원인
  - 2020년 역대 최장기간 장마, 잦은 태풍, 개화기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2020년산 쌀, 과일 생산량 감소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 쌀을 비롯한 곡물과 사과, 배, 마늘, 양파 등 일부 품목은 1년에 1번 수확 후 연중 유통·소비되기 때문에 작황 부진이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부족하면 1년 내내 높은 가격 형성
- 일부 품목은 전년도 또는 전 작형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재배면적 감소<sup>13)</sup>
- 가금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가축질병 발생
  - 2020년 11월 AI 발생으로 가금류의 상당수를 매몰 처분한 이후 육계, 오리, 달걀 가격 상승
- 일시적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제3장에서 추가 분석

## 2019년 농산물 가격 하락의 기저 효과에 따라 최근 체감 물가 상승 폭 확대

- 2019년 농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0% 하락, 축산물은 2018년에 전년 대비 3.5% 하락한 이후, 2019년에도 0.04% 추가 하락
  - 2019년산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19년 3/4분기~4/4분기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과실류  $\Delta$ 9.3%, 과채류  $\Delta$ 17.0%, 근채류  $\Delta$ 30.2%, 조미채소류  $\Delta$ 14.6% 하락
  - 곡물류는 '19년 4/4분기~'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Delta$ 2.4% 하락
  - 축산물 가격 '19년 2/4분기, 4/4분기 제외하고 2018~2019년 기간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지속
- 2019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2021년의 농산물 가격 상승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확대됨.

13) 농가의 재배면적 규모는 기대수익성에 의해 결정되며, 기대수익성은 전년도 혹은 전 작형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이듬해 혹은 차기 작형의 재배면적은 감소(증가)함.

## 03

##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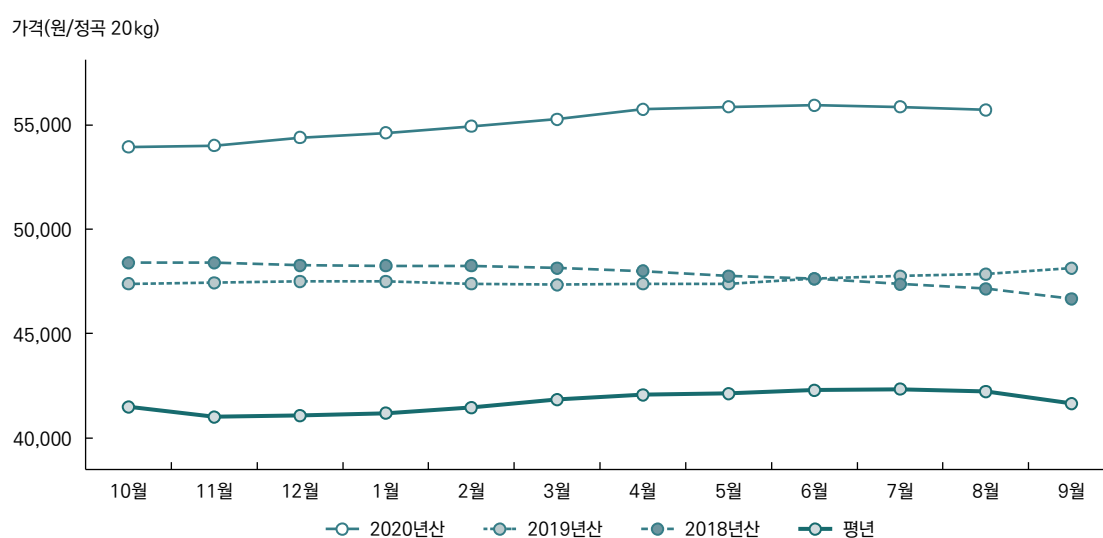
- 농업관측 대상 품목 중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9개 품목 선정
  - 쌀, 미늘, 양파, 대파, 사과, 배, 계란, 한우, 돼지

## 3.1. 쌀

##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20년산 쌀 가격 상승

- 2020년산 쌀 생산량은 약 350만 7천 톤으로 2019년 대비 6.4% 감소하여, 가격 상승
  - 2020년산 쌀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5% 감소,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단수는 5.9% 감소
  - 수확기 이후 산지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6월 기준 55,904원/정곡 20kg
  - 2020년산 산지 쌀 가격은 6월 15일 조사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완만하게 하락

〈그림 2〉 산지 쌀 가격 변화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5~2020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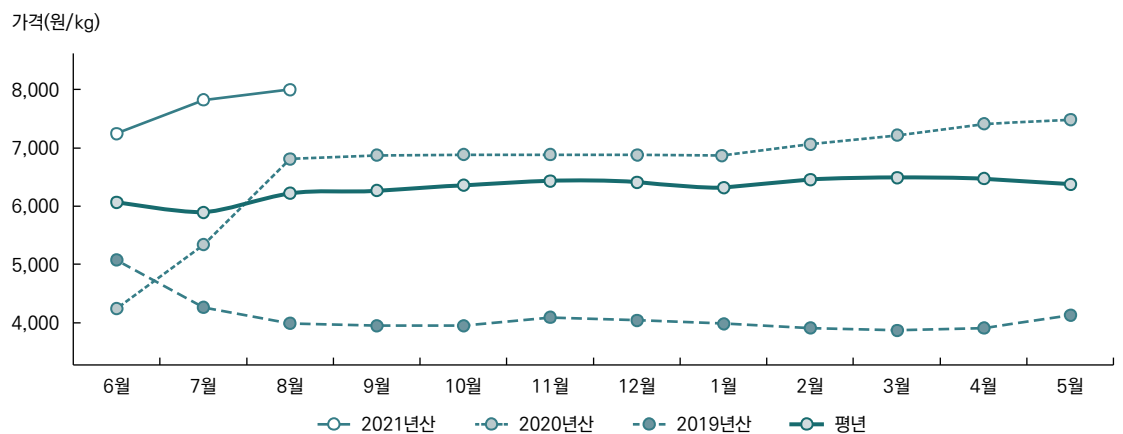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지쌀값조사." (도매가격 기준)(<https://kosis.kr/>, 검색일: 2021. 9. 6.).

### 3.2. 채소

####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20년산 마늘 가격 상승

- 2020년산 마늘 생산량은 약 36만 3천 4백 톤으로 2019년 대비 약 6.3% 감소하여, 가격 상승
  - 2020년 9월 기준 6,897원/kg을 기록한 2020년산 마늘 가격은 저장·가공비용의 상승으로 2021년 5월까지 높은 가격대를 유지(2021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80% 상승한 7,503원/kg)
- 2021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가격 상승세 지속
  - 전년 대비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마늘 생산량은 31만 3천 톤
  - 2021년산 8월 마늘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8,033원/kg

〈그림 3〉 마늘 도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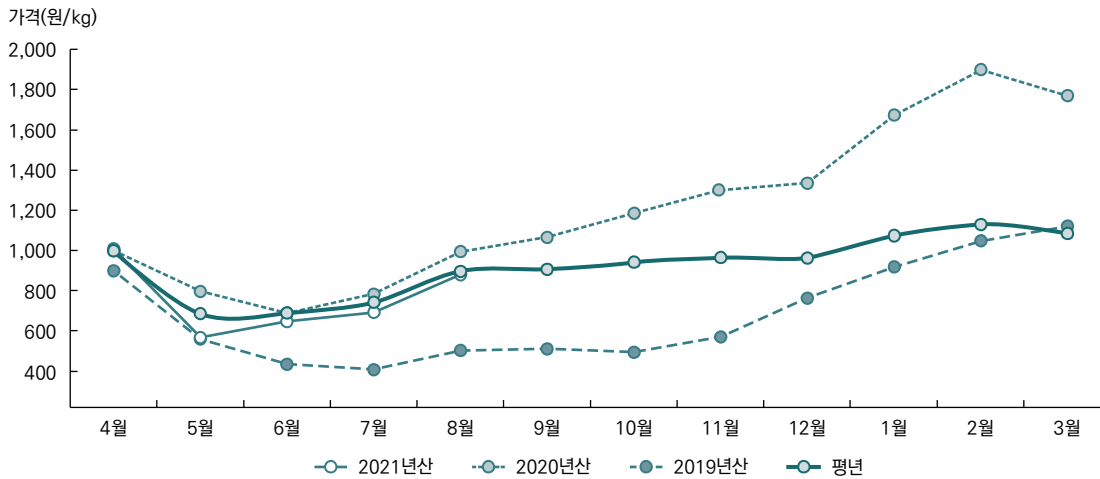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은 2015~2020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s://www.kati.net/>, 검색일: 2021. 8. 9.).

#### 기저 효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20년산 양파 가격 상승

- 2020년산 양파 가격 평균은 2019년산 양파 가격 약세의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71.1% 상승
  - 2019년산 양파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인 159만 4천 톤
  - 2020년산 양파 생산량은 약 134만 톤으로 2019년 대비 약 16.0% 감소하여, 가격 상승
  - 2020년산 양파 가격은 6월에 691원/kg을 기록한 후 2021년 3월 기준 1,785원/kg으로 꾸준히 상승
- 2021년산 양파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저장업체 저장량도 증가하여 가격은 하락
  - 2021년산 양파 가격은 4월에 1,005원/kg을 기록한 후 안정세로 전환, 5월 최저가인 574원/kg, 7월과 8월은 전년 대비 각각 11% 하락한 700원/kg, 884원/kg

<그림 4> 양파 도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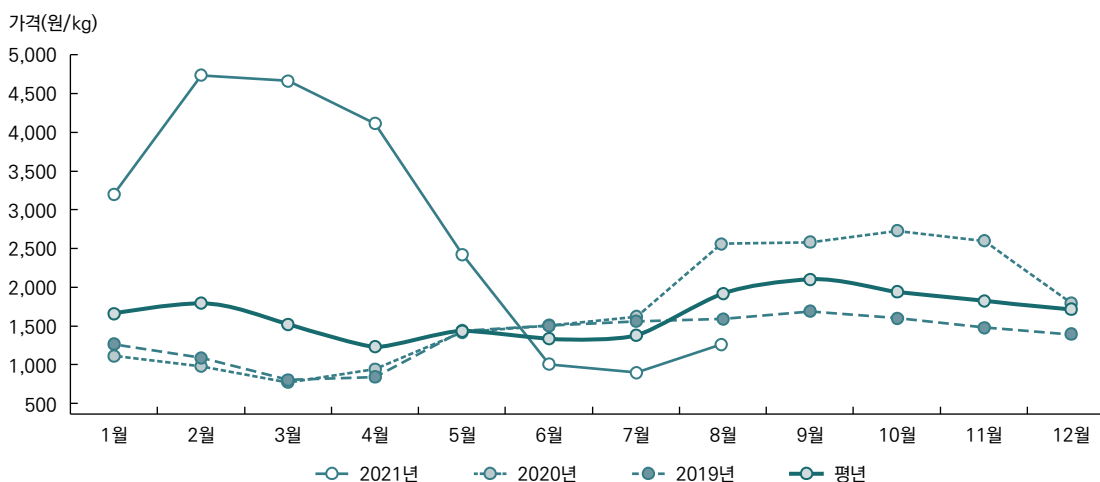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5~2020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겨울철 동해로 2021년 초 대파 가격 상승, 봄 대파 생산량 증가하여 6월부터 가격 하락

- 1월 한파 영향으로 2021년 겨울 대파에 심각한 동해가 발생, 급격하게 가격 상승
  - 겨울 대파의 작황 부진으로 대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월에는 최고가인 4,745원/kg
- 2021년 4월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5월부터 봄 대파가 출하되면서 안정세 전환
  - 대파 가격은 봄 대파 출하 시기인 5월(2,432원/kg)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그림 5> 대파 도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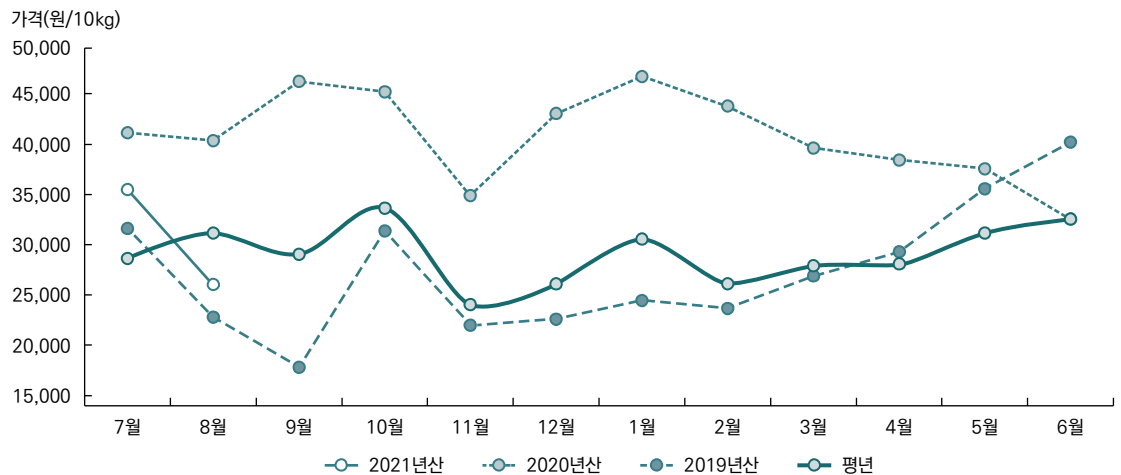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6~2020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 3.3. 과일

####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 태풍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2020년산 사과 가격 상승

- 2020년산 사과 생산량은 약 42만 2천 톤으로 2019년 대비 약 21.1% 감소하여, 가격 상승
  - 2020년산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저온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 긴 장마 이후의 병 발생 증가, 태풍 피해, 과실 비대 부진 등으로 단수는 19.2% 감소
  - 2020년 8~9월 태풍 피해로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2020년산 홍로 가격은 8월 전년 대비 54% 상승한 59,200원/10kg, 9월 전년 대비 160% 상승한 46,050원/10kg
  - 11월 후지 가격은 전년 대비 59% 상승한 34,944원/10kg, 2020년산 후지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2021년 1월 47,050원/10kg
  - 2020년산 후지는 전년 대비 저장량이 감소하여 2021년 5월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
- 2021년산 사과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 대비 각각 6% 증가, 생산량은 47만 5천 톤 전망
  - 8월 홍로 가격은 전년 대비 34% 하락한 39,200원/10kg

〈그림 6〉 사과 도매가격 변화 추이



주: 월별 가격은 생산 시기별 대표 품종인 쓰가루(7~8월), 홍로(9월), 양광(10월), 후지(11~6월)의 가격.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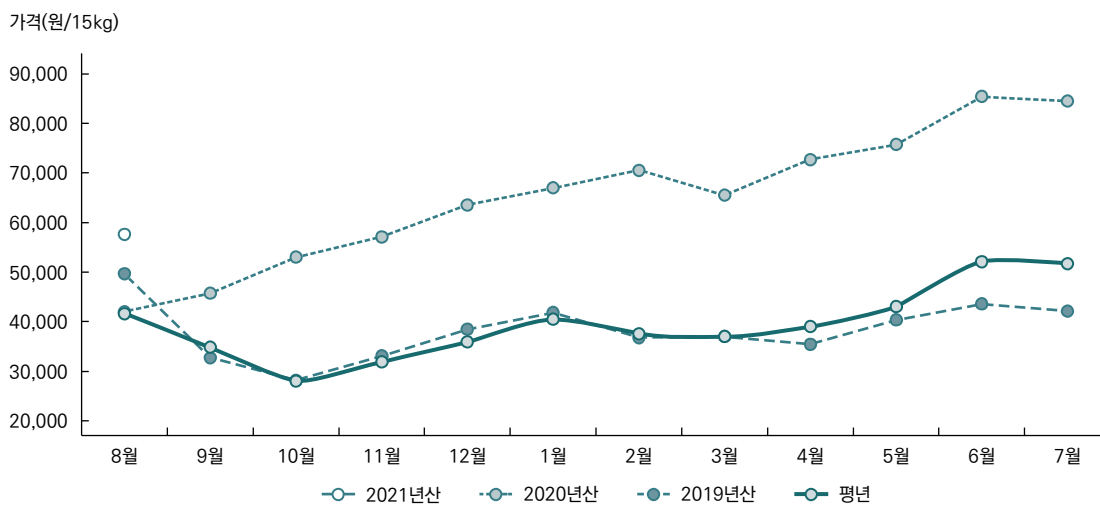
####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20년산 배 가격 상승

- 2020년산 배 생산량은 13만 3천 톤으로 2019년 대비 34% 감소하여, 가격 상승
  - 2020년산 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저온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 긴 장마 이후의 병 발생 증가, 태풍 피해, 과실 비대 부진 등으로 단수는 29.7% 감소



- 2020년산 신고는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 9월 전년 대비 34% 상승한 46,358원/15kg, 2021년 2월에는 91% 상승한 70,185원/15kg, 7월까지 높은 가격(84,869원/15kg) 유지
- 2021년산 배는 재배면적 전년 대비 7.5% 증가, 단수 30% 증가하여 생산량 전년 대비 39% 증가
  - 조생종인 원황의 8월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하였으나, 신고 품종이 출하되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그림 7〉 배 도매가격 변화 추이



주: 월별 가격은 생산 시기별 대표 품종인 원황(8월), 신고(9월~익년 7월)의 가격. 평년 가격은 2015-2019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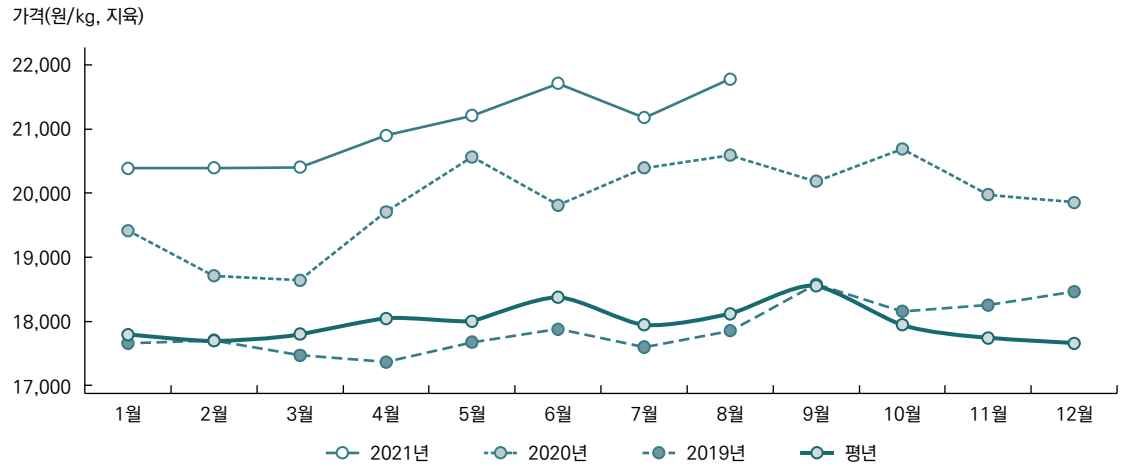
### 3.4. 축산물

#### 2021년 한우 도축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가격 상승

- 2021년 한우는 생산량 증가에도 수요 급증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
  - 2021년 한우 사육마릿수는 334만 3천 마리로 전년 대비 3.6% 증가, 도축 마릿수는 88만 6천 마리로 전년 대비 16.1% 증가
  - 2021년 1월 한우 도매가격은 집밥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 내 한우고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0% 상승한 20,403원/kg
  - 한우 도매가격은 2021년 4월 이후 쇠고기 수입단가 상승과 가정 내 한우고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 유지(8월 21,794원/kg)<sup>14)</sup>

14) 〈표 5〉의 분석 결과, 처분가능소득 및 집밥 수요 증가가 최근 쇠고기 가격 상승의 34% 이상 파급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8〉 한우 도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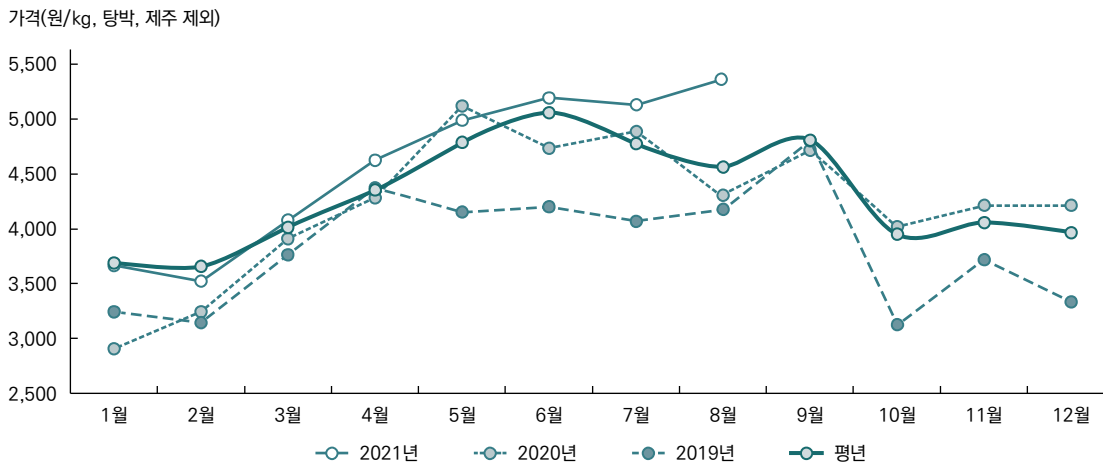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6~2020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https://www.ekapepia.com/index.do>, 검색일: 2021. 9. 6.).

### 수입가격 상승 및 가정 내 수요 증가로 2021년 돼지고기 가격 상승

- 2021년 수입 돼지 단가 상승하여 수입량 감소, 국내산 가격 상승
  - 중국은 ASF 발생 이후, 최근 2년간 자국의 돼지 수입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오퍼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수입량은 감소
  - 〈표 5〉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여 최근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의 파급 효과를 추정한 결과, 수입단가 1% 상승하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약 0.4% 상승
- 2021년 돼지 총공급량 감소와 가정 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
  - 2021년 상반기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수입량이 8.5% 감소하여 총공급량(약 73만 톤)은 전년 대비 2.1% 감소
  - 2021년 1월 돼지 도매가격은 집밥 수요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4% 상승 (3,664원/kg)
  - 국내 업체들은 수입 오퍼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감소로 수입량을 줄이고, 국내 육가공업체의 돈육으로 돼지 공급물량을 확보. 국내 축적되어 있던 재고량이 소진되면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은 8월 (5,363원/kg)까지 상승세

〈그림 9〉 돼지 도매가격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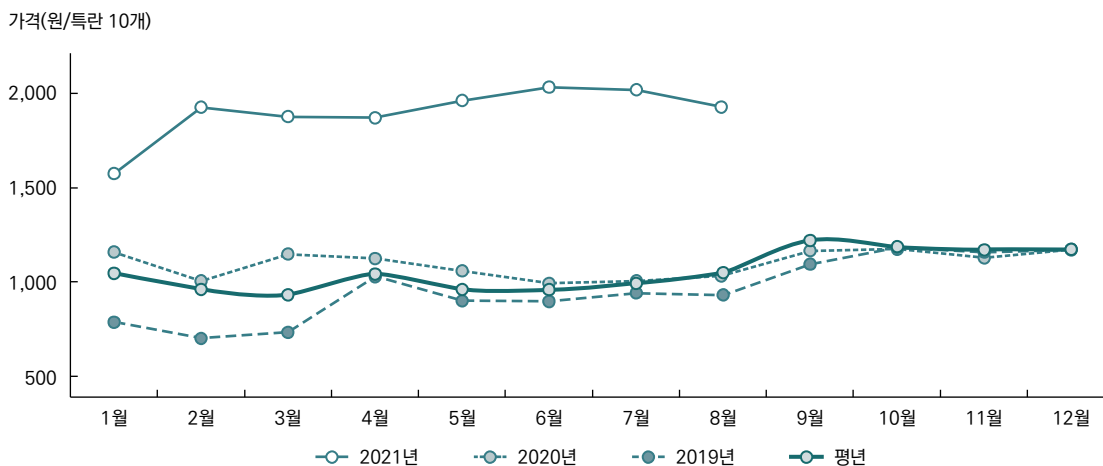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6~2020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https://www.ekapepia.com/index.do>, 검색일: 2021. 9.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21년 계란 가격 상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2020년 12월 산란계의 약 20%가 살처분
  - 2021년 1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35.5% 상승한 1,577원/10개, 생산량 부족으로 계란 산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2,025원/10개)까지 가격 상승
  - 2021년 봄철 이후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고 성계 도태가 감소하여 계란 생산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정 내 수요도 증가하여 계란 가격 안정화 지체

〈그림 10〉 계란 산지가격 변화 추이



주: 평년 가격은 2016~2020년의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평균. 농협중앙회의 가격조사 중단으로 2019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활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https://www.ekapepia.com/index.do>, 검색일: 2021. 9. 6.).

# 04

## 시사점

2021년 상반기 농식품 가격 상승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컸으나, 하반기 들어 공업제품·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2020년 긴 장마, 태풍 등에 의한 농산물 생산 감소, 겨울철 한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 가을에 수확하여 이듬해 소비하는 쌀, 건고추, 마늘, 사과, 배 등의 2020년산 가격이 상승하여 2021년 상반기 농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
  -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대파, 배추 등의 생산이 감소, 봄 작형이 출하될 때까지 가격 상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가금류 살처분으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하여, 육계·계란·오리 등의 가격 상승
- 하반기, 양호한 기상의 영향으로 채소류 작황 호전, 2021년산 농산물의 수확, 가금류 재입식에 따른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
  - 대파·배추 등의 봄작형 가격 하락, 생산이 증가한 양파·건고추 등의 2021년산 수확, 육계·산란계 등의 입식 증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
  -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의 특성 때문에 2020년산이 거의 소비되지 않는 여름철에도 과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산출, 과일류를 제외하고 농산물 물가지수를 재산정하면 8월 기준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하락 반전
-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공업제품·개인 서비스 물가의 상승 기여도가 확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며,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가 축산물 가격 상승에 일정하게 영향

- 수요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은 미미하며, 처분가능소득 증가, 집밥 소비 증가, 수입단가 상승 등은 축산물 가격의 상승에 일정하게 영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 소비를 제외한 가계의 지출 감소,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또는 잉여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우 등 축산물의 가격 상승에 영향
- 한우는 도축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한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
- 돼지고기는 전년과 생산량이 비슷하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 공급 측면에서 임금 상승 등에 의한 가격 상승 영향은 미미하며, 주로 수급 여건의 변화에 의해 가격 상승
  - 재배면적의 감소, 기상 여건 등에 의한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2020년산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산물 가격이 상승

####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농산물 가격은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 변동에 의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나, 최근 가격 변동은 수요 측면 요인의 변동도 일정 부분 영향
  - 단기적 공급 측면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 요인의 변동도 최근 농산물의 가격 상승에 영향
  - 2020년 하반기 이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단가 상승이 국내산 육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에 기여
  -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농산물 잉여소득 증가 및 집밥 소비 증가 요인도 농산물 가격 상승에 기여
- 공급 측면 요인과 함께 수요 측면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급 측면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 측면 요인의 변동과 이들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
  - 품목별 가격 변동 요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격 안정화를 모색할 필요

# [ 부 록 ]

## 참고 자료

〈부표 1〉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변화율 (%)	하반기	변화율 (%)	상반기	변화율 (%)
총소득(A)	4,220	4,293	4,341	2.9	4,370	1.8	4,335	-0.1
근로소득	2,741	2,759	2,696	-1.7	2,760	0.1	2,760	2.4
사업소득	804	914	779	-3.1	895	-2.0	787	1.0
재산소득	34	26	32	-5.4	28	6.2	33	0.9
이전소득	565	532	742	31.3	611	14.7	670	-9.7
공적이전소득	334	336	529	58.2	411	22.1	459	-13.3
사적이전소득	231	196	213	-7.7	200	2.0	211	-0.9
비경상소득	71	62	92	29.7	76	21.4	81	-11.8
가계지출(B)	3,325	3,337	3,223	-3.1	3,256	-2.4	3,300	2.4
소비지출	2,451	2,466	2,382	-2.8	2,417	-2.0	2,447	2.7
식료품·비주류음료	320	345	361	12.9	401	16.0	378	4.6
주류·담배	36	36	37	1.8	38	7.7	38	3.7
의류·신발	140	137	116	-16.9	120	-12.6	118	1.5
주거·수도·광열	293	262	301	2.6	271	3.6	323	7.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9	113	124	4.2	129	14.6	126	1.9
보건	202	202	218	7.8	223	10.2	224	2.8
교통	276	316	288	4.5	289	-8.5	283	-1.6
통신	120	126	118	-1.6	122	-3.5	119	1.5
오락·문화	187	174	146	-21.7	133	-23.7	142	-2.9
교육	212	198	151	-28.7	167	-15.7	176	16.7
음식·숙박	339	352	316	-6.9	322	-8.4	318	0.6
식사비	329	339	306	-6.7	311	-8.0	307	0.2
숙박비	11	13	9	-11.5	11	-17.8	11	14.6
기타상품·서비스	208	205	207	-0.6	201	-1.5	201	-2.7
비소비지출(C)	874	871	840	-3.8	839	-3.7	853	1.5
처분가능소득(D=A-C)	3,346	3,422	3,500	4.6	3,531	3.2	3,482	-0.5
가구 내 식사소비를 위한 잉여소득	1,215	1,302	1,479	21.7	1,514	16.3	1,413	-4.4

주: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분기 자료를 월평균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기준임. 변화율은 전년 동기 대비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https://kosis.kr/, 검색일: 2021. 9. 6.).

〈부표 2〉 전년 동월 대비 수입단가 등락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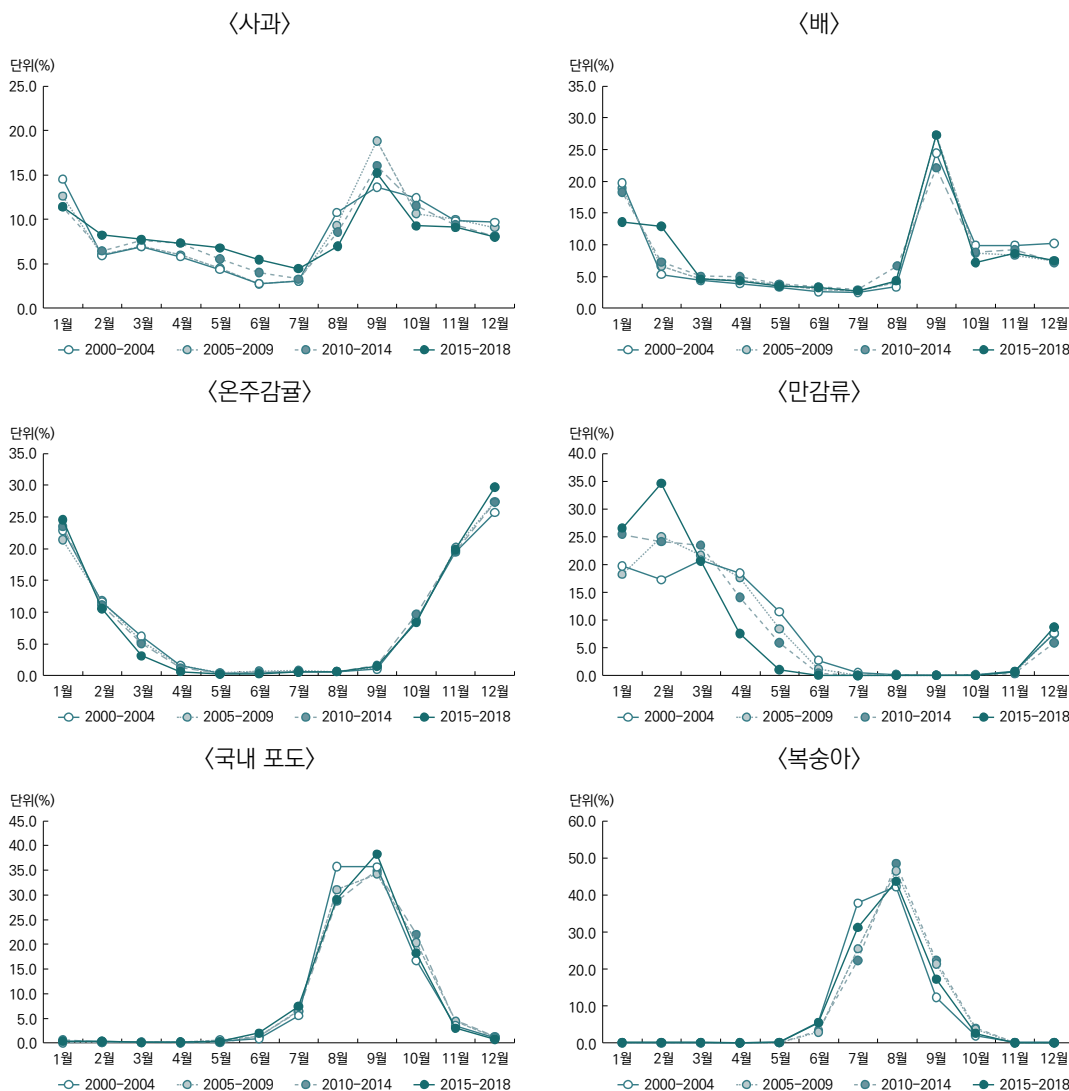
구분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전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20년	7월	9.8	8.5	0.7	-2.3	11.6	-6.1
	8월	14.1	2.3	-1.2	-2.2	2.0	-15.2
	9월	17.7	7.9	6.6	4.9	3.8	-14.1
	10월	6.8	12.3	2.3	-2.6	4.1	-17.3
	11월	-1.3	5.7	4.2	-2.0	11.3	-12.9
	12월	1.3	7.6	3.9	-1.4	8.9	-16.0
	평균	8.1	7.4	2.8	-0.9	7.0	-13.6

구분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전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21년	1월	10.4	8.2	1.7	-0.4	13.4	-21.2
	2월	13.0	2.0	0.6	0.7	14.6	-15.9
	3월	13.5	-0.1	1.9	2.5	8.5	-11.6
	4월	7.7	14.2	8.4	6.2	12.7	-12.1
	5월	7.2	8.0	9.3	14.8	16.1	-10.0
	6월	12.8	10.6	13.2	13.3	22.2	-6.7
	7월	4.5	5.9	14.0	18.3	28.7	1.3
	평균	9.9	7.0	7.0	7.9	16.6	-10.9
2020년 하반기~최근 평균		9.0	7.2	4.9	3.8	12.1	-12.1

주: 수입단가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임. 수입 곡물은 대부분 가공이나 사료로 사용되는 반면 국산 농산물은 식용으로 소비되어 수입과 국산 곡물의 수요대체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음.

자료: KATI 농식품 수출정보(<http://www.kati.net/>, 검색일: 2021. 8. 12.).

<부도 1> 국내 주요 과일의 월별 출하 비중



자료: 윤종열·박기환·박한울(2019)의 <부도 2-3>을 재인용함.

---

## 참고문헌

- 서홍석·김충현·김준호. 202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20 운용·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종열·박기환·박한울. 2019.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20.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https://www.garak.co.kr/main/main.do>>. 검색일: 2021. 9. 6.
- 통계청(산지쌀값조사). <<https://kosis.kr/>>. 검색일: 2021. 9. 6.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https://kosis.kr/>>. 검색일: 2021. 9. 6.
-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1.9. 6.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TI 농식품 수출정보). <<https://www.kati.net/>>. 검색일: 2021. 8. 9.
- 한국은행(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1.8. 23.
-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 <<https://www.ekapepia.com/index.do>>. 검색일: 2021. 9. 6.



#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01호

##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10.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